

[현장스케치] 한국 미술계의 봄을 환영해, 2022 화랑미술제

- 김서진 기자
- 승인 2022.03.18 09:29

2022 화랑미술제 /한국화랑협회

[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한국 미술축제의 시작이자 2022년 봄을 여는 아트페어인 2022 화랑미술제가 3월 20일까지 서울 양재동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된다.

전시 측은 지난 40년간 한결같이 한국 미술시장과 함께 해 온 2022 화랑미술제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며,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 화랑미술제는 수십년간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자랑한다. 143개 국내 우수 화랑이 참가해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무려 4,00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더불어 제3회를 맞이한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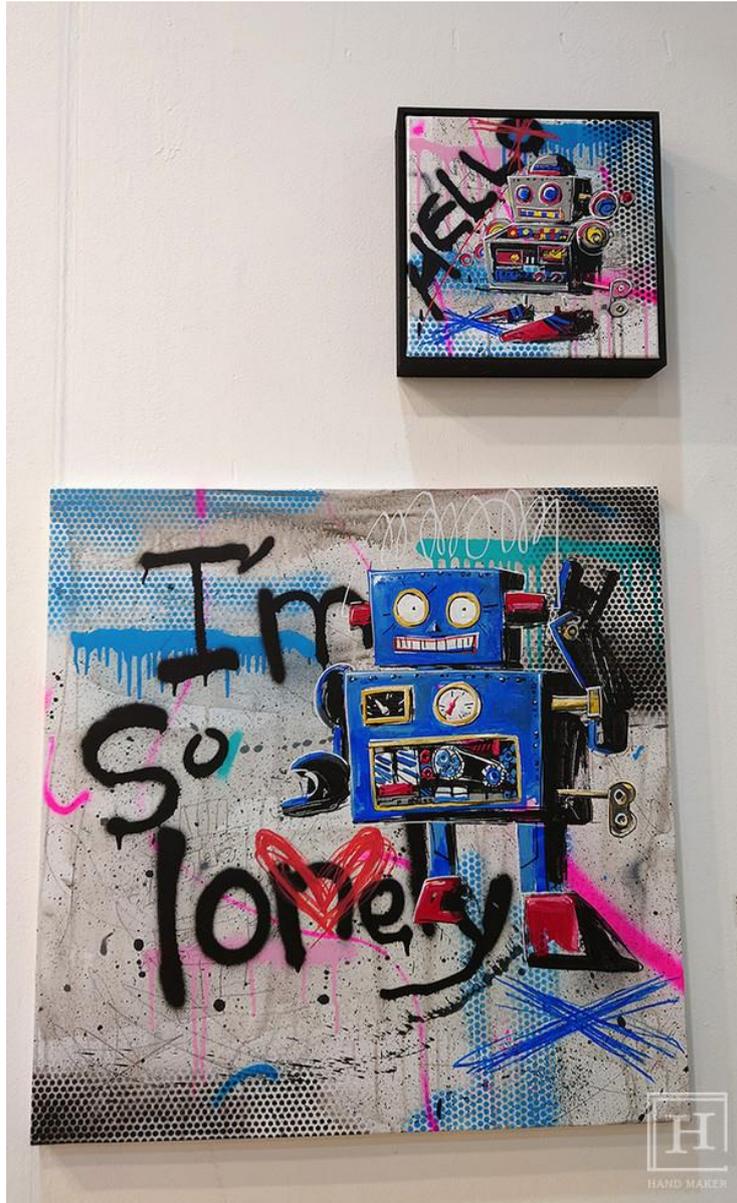
화랑미술제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김서진 기자

1976년 설립된 한국화랑협회는 국내를 대표하는 165개 화랑이 소속된 비영리 법인단체다. 키아프 서울, 화랑미술제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운영하며 미술의 대중화 및 건전한 산업 육성에 앞장서 한국 미술시장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있다.

화랑미술제 40주년을 맞아 아트페어 역사를 돌아보는 아카이빙 전시에서, 아카이브 키워드는 연결된 생태계다. 2022 화랑미술제는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두 가지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국내외 사회적 정치적 주요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며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화랑미술제와 한국화랑협회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미술계의 변화에 발맞춰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 궤적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애니쿤 (위)'Hello', (아래)'I'm so lonely' /김서진 기자

로봇 그림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 세계를 구축한 애니쿤은 현대인의 모습을 오래된 장난감 로봇에 투영한다. 태엽을 감는 강통 로봇, 스타워즈 시리즈의 이미지는 오늘날 종종 회자되는 레트로적 감성이 보이며, 젊은 에너지와 툭툭 튀는 분위기 이면에 로봇의 재미있는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를 통해 오늘날 대중 속 소외와 고독을 읽어낼 수 있다.

작업은 과거 명작의 패러디 요소들은 물론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는 그래피티 채색 기법의 빠르게 지나가는 흔적으로 팝적인 경쾌함을 보인다. 만화적 요소와 인쇄 망점, 이미지와 텍스트의 자유로운 중첩을 보이는 가운데 절제된 구성과 색채로 평면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회화 평면을 구사한다. 그는 '삶은 예술이고 예술을 삶이다'라 말하며, 평면과 오브제, 영상 작업을 아우르면서 일상으로 소통한다.



신미경, 'Translation-Baekja Series 024' /김서진 기자



신미경, 'Ghost Series' /김서진 기자

신미경 작가는 25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조각의 재료가 아닌 '비누'라는 매체의 가변적인 물성과 풍화되는 유물의 형태를 대응시키면서 시간성을 가시화해 시공간적 문화, 재료 간의 '번역'에서 오는 간극을 끄집어낸다. 최근 조각적 재료인 제스모나이트를 매체로 하는 작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1988년부터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비너스를 비롯한 서양 고전 조각상, 불상, 도자기 등을 비누로 정교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빚어내며 '비누 작가'로 주목받았다.

작업은 흐르는 시간에 따라 마모되고 소멸될 위협에 놓인 역사적 유물이나 예술품과 관련, 주위 환경에 의해 변형되고 사라지는 비누라는 매체를 선택해 그 질료적 특성을 강조했다. 조각 재료의 대체제로 쓰인 일상의 소모품인 비누의 물성은 견고한 권위의 조각적 형상과 충돌해, 유물이 지닌 상징적 가치나 절대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홍수연, 'Intrinsic Dialogue #G02' / 김서진 기자

작가 홍수연의 작업은 주로 단색조의 화면으로 유기적인 형태들이 천천히 캔버스 위를 떠돈다.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며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듯 매끄럽고 자유로우며 우아하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화면은 보면 볼수록 힘이 있고, 구성 또한 탄탄하다. 그만의 새로운 회화 방식으로 단순함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지층들은 서로 겹쳐지며 화면에서 깊고 무한한 공간성을 만든다. 작업 방식은 안료를 캔버스에 붓고 기울임에 의해 형태를 결정하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캔버스를 기울여 색을 입히는 그의 작품에는 빛이 존재한다.



화랑미술제 /김서진 기자

한국화랑협회 황달성 회장은 "코로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열기는 대단히 뜨겁다"며, "회원 화랑들의 미술 장터인 화랑미술제는 국내 미술시장의 분위기를 판가름할 수 있는 행사로 한 해의 시장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시회 측은 이번 화랑미술제 전시가 단순히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구매하는 아트페어를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유기적인 문화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핸드메이커(handmak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서진 기자

---